U+프로야구 SK텔레콤, KT 고객도 U+프로야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ONE스토어/Play스토어에서 [U+프로야구] 다운로드 받으세요

트릭은 끝났다… 멕시코전 정면승부

손흥민

대한민국, 24일 0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
검증된 최상의 라인업으로 16강 불씨 살린다

신태용 감독이 야심 차게 준비한 '트릭'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첫 상대의 스웨덴과의 치열한 '분석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썼던 고육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 앞으로 만날 멕시코와 독일을 상대로는 정면돌파하는 길만이 남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는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준비해왔던 경기였다.

첫 경기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우승후보 독일과 15위 멕시코에 비하면 24위 스웨덴이 그나마 맞서볼 만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대표팀은 스웨덴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스웨덴에 우리를 철저히 숨겼다.

마지막 평가전인 세네갈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평가전에서도 베스트11과 최적의 전술이 아니라 상대를 교란하기 위한 라인업을 내세웠다.

평가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위장 등 번호를 달았다는 사실은, 스웨덴의 한국 대표팀 사전캠프 염탐과 더불어 외신들이 한국-스웨덴전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가진 내용이기도 했다.

끝까지 꽁꽁 감추다 경기 직전 공개된 전술과 선발 명단엔 실제로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다.

특히 볼리비아 평가전에서 장신 공격수 김신욱(전북)을 선발 투입한 후 '트릭'이라고 표현했던 신 감독은 이날 선발 명단에 김신욱을 올리며 결과적으로 '이중 트릭'을 구사했다.

그러나 애써 준비한 트릭도 한국 영상 1300건을 분석했다는 스웨덴을 속이진 못했다.

전반 초반 10분간 우리 대표팀이 스웨덴의 진영을 휘젓고 김신욱이 문전 헤딩을 한 차례 시도한 것에서 깜짝 전술의 효과는 다했다.

오히려 끝까지 감추고 감추느라 귀중한 평가전에서 베스트11과 플랜A를 점검한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정작 스웨덴 맞춤형으로 선발한 문선민(인천)은 그라운드를 밟아보지도 못했고, 역시 스웨덴 공략을 위해 뽑았다고 한 이승우(베로나)도 후반 교체로만 출전해야 했다.

16강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멕시코전에선 더는 감추거나 트릭을 사용할 여유도 없다.

지금까지 검증된 최고의 라인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첫 상대 한국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스웨덴과 달리 멕시코는 한국보다는 독일, 스웨덴에 관심을 집중해왔다는 점도 노림수 없는 정면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1패를 안은 상황이기 때문에 24일(한국시간) 오전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패한다면 2전 전패로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다.

16강 진출 경우의 수는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멕시코에도 진다면 3전 전패로 탈락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주장 과르다도

'빛나는 선방' 골키퍼 조현우 "긴장 했지만 후회없이 막고 싶었다"

멕시코전 안 될 것 없어 공격적으로 하면 승산 있다

태극전사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경기는 패배로 끝났지만 골키퍼 조현우(대구)의 빛나는 선방은 실망한 팬들에게 위안을 줬다.

지난 18일 운명의 스웨덴전 수문장으로 깜짝 선택을 받은 조현우는 여러 차례 인상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대량 실점을 막는데 기여했다.

얀네 안데르손 스웨덴 감독도 조현우의 활약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영국 BBC 등 외신들도 조현우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경기 후 조현우는 "골키퍼 코치님과 선수들끼리 미팅을 통해 분석을 많이 했고 준비한 대로 나온 결과였다"며 "비록 실점했지만 팀이 다운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떨쳐냈다.

후반전 페널티킥을 허용하긴 했으나 철저한 준비와 최선을 다한 조현우의 얼굴에 안타까운 기색은 짙지 않았다.

조현우는 "분석을 통해 그 선수(안드레아스 그란크비스트)가 (공 방향을) 보고 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잘 안됐다"며 "그래도 준비한 대로 경기력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만 뒤에서 더 소리치며 해야 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전반 20분 마르쿠스 베리의 위협적인 슈팅을 막아낸 순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포기하지 않았고 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의 선발 출전은 상대팀 스웨덴은 물론 국내 팬들의 예상도 벗어난 것이었다.

조현우는 이날 경기 전에야 선발 출전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골키퍼들은 누가 나가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첫 월드컵 무대였던 이날 경기에 대해서는 "긴장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며 "선수들이 정말 많이 힘을 줬고 두렵지 않았다. 후회 없이 하려고 했다. 코치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18일 러시아 월드컵 F조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에서 골키퍼 조현우가 골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비록 스웨덴전은 패배로 끝났지만 빨리 추스르고 다음 멕시코전을 준비해야 한다.

조현우는 "멕시코는 역습이 빠르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하면 안 될 것도 없다"며 "분위기가 좋아야 할 것 같다. 1패를 안았으니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절대강세 유럽팀·힘 못쓰는 남미팀·전패 아프리카

아시아는 이란 1승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선 유럽 팀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관례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국가들은 현지 날짜로 18일에 열린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다.

F조 스웨덴이 한국을 1-0으로 꺾었고, G조의 잉글랜드와 벨기에는 각각 튀니지와 파나마를 물리치고 승점 3을 가져갔다.

유럽 국가들은 19일까지 8승 4무 1패의 '절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진 경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FIFA 랭킹 1위 독일이 멕시코에 당한 0-1 패배다.

네 차례 비긴 경기 중 2 무승부로 기록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전은 지금까지 열린 조별리그 경기 가운데 최고의 명승부로 꼽힐 정도로 내용 면에서도 알찼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만들어냈고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은 0-1, 1-2에서도 끈질기게 따라붙다가 3-2로 역전까지 하는 등 결승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20차례 월드컵 가운데 유럽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유럽 국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남미 국가가 우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외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것과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독일이 정상에 오른 경우뿐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미 팀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남미 축구를 양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모두 1차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브라질은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 등 유럽의 '복병' 수준의 팀들과 나란히 1-1로 비겼다. 우루과이만 이집트를 상대로 1-0으로 가까스로 이겼고, 페루는 덴마크에 0-1로 졌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하고 3무 9패에 그쳤던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이란이 모로코를 1-0으로 잡아내며 8년 만에 승리를 수확했다.

그러나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는 모두 1차전에서 패하면서 세계 수준과는 격차를 보인다.

아프리카 팀들의 부진도 눈에 띈다.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가 모두 1차전에서 패했다. /연합뉴스

네이마르 1차전서 당한 반칙 10개…20년만에 최다

매 앞에 장사 없듯 파울 앞에 슈퍼스타도 힘을 잃는다.

세계 3대 공격수 중 한 명인 네이마르(브라질·사진)는 18일 스위스와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무려 10개의 반칙을 당했다.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이 운영하는 통계 전문 트위터 계정 '스탯 앤드 인포'는 19일, 네이마르가 당한 파울 개수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래 한 선수가 당한 가장 많은 반칙이라고 전했다.

그해 프랑스 월드컵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앨런 시어러(잉글랜드)가 11개의 반칙을 얻은 이래 가장 많다.

브라질을 상대로 19개의 반칙을 남긴 스위스는 이 중 절반이 넘는 파울을 네이마르에게 범한 셈이다.

볼만 잡았다면 2~3명이 에워싼 바람에 네이마르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영국 BBC는 반칙에 쓰러진 바람에 네이마르에겐 공을 만진 시간보다 그라운드에 누운 시간이 더 길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